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인의 특권

우르밀라 고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0년이 지났지만 통일 독일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동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수가 자신을 2등 국민¹⁾으로 여긴다는 결과가 설문 조사에서 거듭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비판적 백인성 연구, 젠더학 및 퀴어학 같은 권력비판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 통일 과정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독 지역에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서독 지역에서만 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갖게 된 드러나지 않는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을 타자화하여 배제시키는 규범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적 규범의 특권, 연속성과 안정성의 특권,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의 특권 및 일탈자 구성의 특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009년 4월

필자는 1970년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필자는 정기적으로 (초반에는 인도 여권으로, 나중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여권으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을 방문했다. 국경 통과 검문을 받고 방문자 등록을 위해 동독인민경찰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국경선이 비인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국경선이 일방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필자의 조부모는 퇴직 후에야 비로소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고모²⁾ 중 한 명은 여행 허가 자체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이로 인한 여행의 자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필자의 가족에게 (재)통합을 의미했다. 우리는 만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서로를 만나러 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

국경 통과 검문을 받고
방문자 등록을 위해
동독인민경찰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국경선이 비인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국경선이 일방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5년 후 필자는 동베를린으로 이주하여 동독 지역의 한 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었고, 필자가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를 거친 사람으로 통일된 독일에서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이 글의 시발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서독과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갖게 된 불평등한 지위를 보여주고 그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필연적으로 이러한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강조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념에 대해 거듭 고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 속했던 지역을 서독 지역(Westen)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동독에 속했던 지역에 대해 동독 지역(Osten)이라고 지칭하겠다. 이 글에서는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 또는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결코 고착된 고정관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0년 】

2009년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독일의 기관들은 올해 20여 년 간 지속된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고 자축할 것이다. 한 예로 독일연방대통령은 내적 통일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서독 지역 커플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학자 빌헬름

하이트마이어나 그의 연구팀은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의 상황”이라는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여 통일 과정의 상황을 담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의 통계 분석은 많은 다른 연구 보고서들이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즉, 다수의 동독 지역 주민이 스스로를 독일의 2등 국민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과정의 방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서독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 밖에도 학자들은 자료를 통해 독일 혈통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동의하는 설문 조사에서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왔다고 추론한다. 이 두 가지 관찰을 통해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의 저편에 서독 지역 사람들이 동독 지역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뚜렷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동독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이는 “암머오썸”³⁾라는 말로 대변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독일에 극우주의를 불러왔다고 여기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동독 지역이 계속해서 서독 지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더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8년 12월 서독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신연방주 재건’ 정책과 거리를 둘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했다(그녀 자신이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특히 동독 지역 정치인들의 거친 반발에 부딪쳤으며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발언 수위를 신속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서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동의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 동독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이 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통일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예를 들면 동독 지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려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동독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계 없이 동독 지역 사람들 다수가 자신을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서로 다른 방식의 논의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동독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삶과 이력이 통일된 독일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동독 지역인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적 인정은 서독 지역 사람들에게 받는, 무엇보다도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치와 언론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 대해 인정하기를

독일의 통일과 동독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이 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통일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예를 들면 동독 지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려왔다.

거부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통일 과정의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논의는 항상 서로 다른 타자(동독 지역)에 대한 것뿐이며, 우세한 체제와 그 체제의 대변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며 문제의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서독 지역).

【 권력 비판적 이론들 】

권력비판적 이론들은 어떤 특권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규범과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며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당연하게 여기는 특권들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한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비판적 백인성 연구 또는 젠더학이나 퀴어학 같은 권력 비판적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특히 (포스트)식민주의 주역들이 정한 타자의 구성 및 (포스트)식민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피식민자들의 반응을 연구한다. 비판적 백인성 연구는 인종주의적 체제에서 ‘백인’이라고 표현되는 패권적 지위를 고찰한다. 젠더학이나 퀴어학은 구성된 양성성의 상호 작용, 상보적 및 서열적 성 역할과 상호 욕구 등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이론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규범을 이슈화하고 해체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한다. 이때 분석의 시각은 피식민자, 피인종 차별자⁴⁾, 여성 또는 이성애자가 아닌 자 등 규범에서 일탈한 자로 구성되는 소외된 지위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패권적 지위에 있는 자들과 일반적으로 추가적 수식어가 붙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언론 보도에서 정치인이 ‘백인’이나 남성 또는 이성애자인 경우 이러한 수식어를 별도로 붙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이 ‘백인’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니거나 이성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적 토론의 주제가 된다. 권력비판적 이론들은 어떤 특권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규범과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며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당연하게 여기는 특권들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특권에는 일반적인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 ‘우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포함되며, 특정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인해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특권을 누리려는 자들은 그것을 특권이기에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특권이 소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특권자들에게 사회적 권력을 확보해 준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시 되는 자(자원과 권력에 접근할 특권을 가진 자)와

타자로 구성된 자(자원과 권력에 접근이 제한된 자) 사이의 이분법적 당위성은 이를 지지하는 지식의 생산을 통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정당화된다. 지배적인 이론들과 이들 이론으로 무장한 기관들은 전술한 이분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법이 없다. 권력비판적 이론들은 이분법의 '당연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근간에 있는 구성 과정과 상이한 권력 지위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당연시 되는 것을 해체하는 이들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다음에서는 동독 및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겠다.

[무의식적 규범]

필자는 몇 년 전에 인도 간호사들의 서독 지역 이민에 대한 글에서 “1960년대 말 독일은 간병인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일 의료 분야에 간병 전문인력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필자가 쓴 ‘독일’이 어떤 독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을까? 간병인이 부족했던 것이 서독 지역이었는지 동독 지역이었는지(혹은 동서독 지역 모두였는지) 골똘히 생각해 봤을까? 아니면 필자가 그 글을 쓸 때 너무나 당연히 여긴 것처럼 독자들도 간병인 부족난을 겪은 것이 서독 지역이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그리고 동독 지역에서도 간병인 부족난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을까)?

통일이 되기까지 서독에서는 서독과 독일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통상의 (비공식적) 언어 사용에서는 실제로 독일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어 BRD는 서독에서 전혀 통용되는 말이 아니었으며, 독일 앞에 ‘서쪽’을 붙이는 것도 필수가 아니었다. 서독이 독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 따라서 독일 축구 팀이 서독 축구 팀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서독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독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으며, 또한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였다. 서독은 추가적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동독에 관한 경우에는 항상 명확하게 명명해야 했다. 구동독 축구 팀은 결코 독일 축구 팀으로 불릴 수 없었다. 적어도 ‘서방’ 세계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랬다.

서독이 독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 따라서 독일 축구 팀이 서독 축구 팀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서독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독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으며, 또한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였다.

통일은 결국 기본법의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동독은 서독의 일부가 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추가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구동독 지역을 '신연방주' 라고 부르고 있다.

대부분의 서독 사람은 동독 지역이 독일에 속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했다. 서독에서는 오랫동안 동독을 DDR⁵⁾로 부르기를 꺼려했다. 그 대신 소련 점령 지역의 약어 SBZ로 지칭하면서 이 국가가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불법적으로 BRD(서독)에서 분리되었음을 강조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국적을 요구할 권한을 가졌으며 서독의 기본법은 제23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법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편입 이후 발효된다.” 서독의 입법자들은 이미 기본법에서 동독에 대한 통제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다. 통일은 결국 기본법의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동독은 서독의 일부가 되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추가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구동독 지역을 '신연방주' 라고 부르고 있다.

1990년 구동독 지역이 편입을 통해 구서독의 일부가 되고 기본법의 의미에 따라 독일의 일부가 되었지만 통일 이후 독일과 서독의 개념은 계속해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 독일은 지금도 여전히 (필자의 간병인 부족난에 관한 글처럼) 일반적으로 당시의 서독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시의 독일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오늘날의 통일 독일에 해당되는 전체 독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문제 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필자가 출강한 구동독 지역의 대학에서 독일 이민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 '독일 이민' 을 곧 '서독 이민' 으로 이해한다. 구동독 이민에 대해서는 강사들도 학생들도 언급하지 않으며, 이러한 틈새 분야에 대한 논의 조차도 없다. 퀴즈 프로그램 중에는 장벽 붕괴 전 서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지식을 묻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또는 정치) 이들 퀴즈에서도 서독에 대한 지식은 마치 전체 독일에 대한 지식처럼 이미지화 되었다. 구동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퀴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있다 하더라도 서독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역사는 대부분 서독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동독의 역사는 중요성이 덜한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거나 대부분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통일된 독일에 대한 담론은 일반적으로 서독에 대한 담론이다. 여성정책 관련 토론에서 부양자 모델에 대해 논의할 때 아무도 동독에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규범이었고, 이 규범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토론에서는 아이들은 전업주부가 돌봐야 한다는 서독의 규범이 일반적인 독일의 규범처럼 논의된다.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한 것도 서독의 규범이 아니라 규범에서 이탈한 동독의 규범이다. 지금도 동독 지역에는 서독 지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보육 시설이 제공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는 서독의 문제이지 동독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자녀 보육과 같은 분야는 동독의 경험이 서독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독의 역사를 귀감으로 삼으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동독에 대한 서독 사람들의 지배적 인상은 매우 일차원적이다. 분단 시절 서로 경쟁하고 혐오했던 정치 체제였고, 인권이 침해 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동독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동독은 오늘날 아무런 흠 없이 서독의 연속성에 잘 맞물려 있을 때만 독일의 개념에 속할 뿐이다. 이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인정 받지 못하거나 이탈 된 것으로 간주되며 결코 독일이 가진 복합성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속성과 안정성]

자기 역사,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의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 특히 자기 삶의 이력이 가지는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은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면서 서독 지역에 사는 대다수 사람의 삶은 실존적 변화를 겪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의 범위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독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혹은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신연방주' 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혹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되었다). 민족적으로 더 강력해진 국가의 국민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게 되었다(혹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되었다). 서독 사람들은 새로운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서독의 납세자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몇 안 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신연방주 재건' 을 위한 통일 연대세 납부였다. 단순히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역사,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의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 특히 자기 삶의 이력이 가지는 연속성에 대한 당위성은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살아온 삶을 계속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에 대해 (그리고 소위 '일하기를 싫어하는' 동독인에 대해) 불평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생활여건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과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대부분의 삶에서 변화를 겪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다. 삶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은 많은 적든 자신의 국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으며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냈다(결코 통일 총리로 불리는 헬무트 콜의 업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여행과 소비의 가능성,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위해 헌신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침내 쟁취한 자유를 더 이상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완벽한 단절을 극복해 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했고, 새로운 당위성을 배워야 했으며, 개인의 삶을 새로운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맞춰 재구성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주체적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환기 낙오자들'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과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변혁을 겪으면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많은 사람들은 이민자의 모습이 되어 갔다. 이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체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체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변혁을 겪으면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많은 사람들은 이민자의 모습이 되어 갔다. 이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체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주해 간 땅에서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타자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나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온 다른 많은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사회화와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역사가 서독 출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이루었고, 지금까지 신봉하고 추구했던 것이 통일된 독일에서 규범을 (재)생산하는 이들로부터 광범위하게 평가절하되었다.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대다수 사람들은 통일로 인해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했으며 상상조차 해 볼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의 안정성과 안전의 테두리 속에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 개개인이 과거에 무엇을 성취했고

현재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업적과 도전을 인정하기 보다는 그들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성과와 소위 '감시할 줄 모르는' 뻔뻔함을 볼 뿐이었다. 연속성의 특권을 가진 자의 시각에서는 변화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경시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문제의 책임 전가]

통일 후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권은 사회 문제의 책임을 동독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연방주 재건'에 들어간 투자는 공공재정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을 노동 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이를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트마이어와 그의 연구팀이 분석한 차별적 견해에 대한 통계를 보면,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이 더 차별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 된다. 극우주의와 인종주의는, 1992년 로스투크와 호이어스베르다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방화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동독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도 언론과 몇몇 정치인들은 구동독에서 기인하는 동독 지역의 문제로 (재)표현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는 동독 지역에 실존하는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마치 동독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서독 지역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서독 지역에도 스스로 자초한 경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992년은 서독 지역에서 피인종 차별자들의 주거지에 방화 테러가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 하이트마이어와 그의 연구팀이 발간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보고서들은 서독 지역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동독 지역과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 독일의 문제이지 동독 지역에서만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동독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메커니즘은 전 독일에서 뿌리를 뽑아야만 하며, 소수의 일탈자들만의 문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차별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서독 지역이 동독 지역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있다. 하이트마이어와 그의 연구팀이 최근 발간한 "독일의 상황"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성 차별은 서독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통일 후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권은 사회 문제의 책임을 동독 지역으로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연방주 재건'에 들어간 투자는 공공재정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을 노동 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이를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의 책임을 동독 지역에 전가하는
행위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킨다.

우선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자신들도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혐의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독 지역의 체제를
이상적 모범으로 제시하여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조건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성 역할이 여성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당연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따라 언론과 정치도 이러한 형태의 차별을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과 성 역할에 대한 보수적 고정관념은 어머니의 자녀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구동독 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구동독 지역의 자유로운 낙태 규정을 요즘 동독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아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낙태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독 지역에서 발생한 어머니가 저지른 자녀 살인 사건은 안타까운 하나의 단순한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뿐 결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의 책임을 동독 지역에 전가하는 행위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킨다. 우선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자신들도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혐의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독 지역의 체제를 이상적 모범으로 제시하여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조건 없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독 지역의 사람들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문제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독 지역은 확고부동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 타자로 규정하기 】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자체적인 하나의 인종집단⁶⁾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독 지역 사람들이 이미 20년 전부터 교육기관이나 언론 등 서독 지역의 지배적인 기관에서 교육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서독 지역의 규범에서 이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로지 구동독과 구동독이 남긴 유산의 탓으로 돌아갔다.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동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양쪽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서독 지역은 동독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무관한 것처럼 (재)표현된다. 심지어 구동독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유년 시절만을 구동독에서 보낸 젊은이들조차 구동독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낙인이 찍힌다. 동독적 사고방식은 일탈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로 형성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승되어 체화 되는 것이라고 규정짓는다. 이때 동독적인 타자의 구성은 '다름'이 체화 되어

있는 피인종차별적 타자(특히 회교도)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는 믿음은 서독 지역이 가진 당위성의 일부였으며,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에 편입되는 기초가 되었다. 불가분의 독일 민족으로 각인된 이미지의 토대 위에 기본법은 다른 독일 지역의 편입을 허용하였으며, 서독에서는 (최소한 프로파간다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공동의 독일성을 구성했고, 이는 통일 독일이 아무 문제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이미지화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공통점을 이미지화 한 것과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을 타자로 구성한 것 사이의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한 바와 전혀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 앞에 계속해서 모순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듣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타자로 평가절하 하는 행위를 경험한다. 그들은 2등 국민이라고 느끼며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야 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이한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반해 서독 지역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이와 비슷한 모순이 한국에도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우선 통일은 남한에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미지의 토대 위에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일탈 된 한국인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대우 받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들은 이야기를 통해 탈북자와 이들 자녀가 남한의 일상생활에서 출신 성분 때문에 소외되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들이 동등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통일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면성을 잘 다루어야 하며 패권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사회들이 동등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허용하고 상대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후주 |

* 우르밀라 고엘(Umila Goel)은 문화, 사회 인류학자이며, 베를린에서 연구자와 트레이너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권력 관계의 상호의존성, 그 중에서도 인종주의와 이질적 규범성의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고엘 박사의 연구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umila.de에 있다.

1) 이 글의 언어 사용 및 번역을 위한 주석: 이 글에서 독일어의 “Bürger”를 “Bürger_innen”으로 사용한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을 흔들기 위함이다. “Bürger_innen”은 하나의 단어 속에 빈 공간과 틈을 표현함으로써 양성 개념을 상징해 주며, 이로써 복수명사에서 대문자 I를 사용하여 여성을 보다 가시화하려는 독일식 젠더 어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젠더 개념을 흔드는 언어사용 형태는 오로지 독일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필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한 단어 속의 빈칸과 밑줄이 어느 정도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필자가 이 글의 번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언어 표현 시 양성의 (재)생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산 및 (재)표현과 같이 괄호를 사용한 것은 생산/표현은 항상 동시에 재생산/재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역주: 독일어의 명사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구분한다. 그러나 남녀 모두를 통칭하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 주로 남성 복수명사를 사용하여 전체를 표현한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필자는 “국민”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남성 복수명사(Bürger) 대신 여성 복수명사(Bürgerinnen)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Bürger_innen”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성에는 남성과 여성의 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밑줄을 통해 유표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러한 언어표현 방식을 독일어에서 양성 표현을 위해 BürgerInnen과 같이 대문자 I를 중간에 삽입하는 방식보다 더 진보된 것으로 각주 1에서 설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어 명사에는 성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표현하고자 한 방식의 양성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번역에서는 필자가 양성 표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 단어에 밑줄을 쳐서 저자의 의도를 대신하였다.)

- 2) 고모 또는 이모, 독일어는 고모와 이모를 구분하지 않음.
- 3) 얄머오씨(Jammerossi)란 서독 지역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동독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여 지칭하는 말임.
- 4) ‘괴인종차별자’라는 개념은 외관 또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독일에 소속되지 않는 자로 간주되며 열등하게 평가되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5) DDR은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독일민주공화국)의 약어로 구동독을 의미함.
- 6) 인종 집단이란 출신 성분에 기초한 사회적 정체성이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9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